



주간통일정세 2008-03(2008.01.07~01.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0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경제현장과 군부대 시찰로 새해를 시작(1/6, 1/7, 조선중앙통신)**
  - 올해 김정일의 첫 현지 지도 장소는 황해북도 예성강발전소 건설 공사장과 인민군 제776부대 였음.
  - 동 시찰에는 노동당 이용철 제1부부장과 현철해, 이명수 대장이 수행

#### 나. 정치 관련

- **미국의 북한 붕괴론에 대한 김정일의 판단 소개(1/11, 노동신문)**
  - 미국의 북한 붕괴론 관련, 김 위원장은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 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저들의 군사적 압력과 공갈, 경제 봉쇄로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만 보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오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

#### 다. 경제 관련

- **러시아 민속악기 바얀(bayan) 수출(1/10, 조선신보)**
  - 평양악기공장에서 러시아 민속악기 바얀(bayan)을 제조, 본고장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 “이런 나라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바얀도 포함되” 있는 것으로 선전
- **‘농업증산’ 총궐기 대회 개최(1/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1/7, 조선중앙TV)**
  -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비롯한 관계 간부와 평양시내 농업근로자들은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궐기모임 개최 (1/7)
  - 농민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강창욱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남도 재령군 상지강협동농장에서 협동농장으로서는 최초로 궐기모임이 개최(1/8)
  - “농업과학원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과학착상 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토론회, 발표회들을 조직하고 다수확 품종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협동별로 나가 선진 영농기술과 영농



방법을 농장원들 속에 알려주는 사업을 동시에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1/9)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 줄 데 대한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농촌을 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 황해남도내 도급 기관, 기업소 일꾼과 해주시 근로자들이 해주시 영양협동농장 등에 수천 톤의 거름을 보내고 함경남도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백대 분량의 거름을 함주군 상중협동농장 등에 지원했다고 보도

●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21세기 자력갱생(1/9, 조선신보)

- “오늘의 자력갱생은 양보다 질이며, 현대 과학기술과 실리”라고 강조
- “6자회담 합의의 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전환적 국면은 조선의 경제부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의미의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이라는 기치 하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설명

● 2008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일정 확정(1/9, 연합)

- 북한의 조선국제전람사는 올해 5월 12~15일, 9월 22~25일 두 차례 평양상품전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

● 김책공대, 수면부상 보트 개발 및 대외 판매 선전(1/9, 연합)

- 북한의 김책공업대학이 최근 강과 호수에서 택시나 유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중날개배’를 개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와 합작을 제의 중
- ‘수중날개배’는 길이 5.25m, 너비 1.85m, 기관출력 40마력에 최대 5명을 태우고 수면 위 18cm에서 30~40노트의 속도로 “수면 우(위)로 떠가는 작은 배”로 설명

● 김책공대, 정보처리 기술교육 강화(1/7, 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정보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화상, 음성처리를 비롯한 정보처리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미국 1군단사령부 일본 이전에 대한 비난 지속(1/8, 노동신문)

- “미국이 조선전쟁(한국전) 때 일본을 미군의 병참, 보급, 작전기지로 이용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나가와 현에 대한 미국의 전방사령부



개설과 핵심작전기지로의 승격 조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그것은 새로운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

#### 나. 북·중 관계

- **북한 외무성, 중국 대사관과 새해 친선모임 개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새해를 맞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친선 모임을 개최(1/7)
  - 여기에 북측 박의춘 외무상과 외무성 직원들이, 중국 측 류샤오밍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
  - 모임에서 "새해에도 조(북)·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다"고 강조

#### 다. 북·일 관계

- **일본 MD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비난 되풀이(1/9, 노동신문)**
  - 일본이 최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군사적 조치"이며, 첫번째 공격 목표는 북한이라고 주장
- **조총련 오사카본부 건물 매매(1/9, 요미우리신문)**
  - 조총련 오사카 본부가 있는 '오사카 조선회관'이 경매를 통해 약 6억엔(약 51억6000만원)에 매매

#### 라. 기타외교 관계

- **호주 북한대사관 1월말 철수(1/11, 연합)**
  - 호주 주재 북한대사관의 박명국 공사는 "재정적인 이유로 부득이 철수하게 됐다"고 언급, "2002년 5월 8일 양국의 쌍무외교협정 체결"을 하였으나 "하워드 정부는 2003년부터 핵 문제 등을 이유로 관계 발전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외교활동을 제약했다"고 주장
  - 향후 "호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다시 캔버라에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3. 대남정세

#### 가. 대남보도

-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비난 강화(1/12, 통일신보)**
  - 한국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안이 통과된 것을 "추악한 사대매국 행위, 반민족적 범죄 행위"로 비난



- **‘자유신당’ 창당에 대한 비난 가세(1/12, 평양방송)**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권력욕’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민족은 결코 방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 전총재를 “역도”로 표현하면서 “이회창이 당한 참패는 집권욕 실현을 위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반통일분자에게 내린 역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
- **조평통, 한총련의장 검거에 대한 비난(1/11, 조평통 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총련 의장인 전남대 총학생회장 유선민씨의 검거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뒤집어 얹으려는 반역행위”라고 비난

#### 나. 남북교류

- **해남군민 ‘통일쌀’ 북한 전달 예정(1/11, 연합)**
  - 전남 해남 군민들은 통일 쌀 1천 200여 가마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
- **남북합작 ‘평양 치킨점’ 오토바이 배달(1/11, 연합)**
  - 남북이 함께 설립·운영하는 평양의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2월 10일을 전후해 개점한다고 남측 합작사인 ‘맛대로촌닭’의 최원호 대표가 11일 발표, 최 대표는 “최근 북측 합작사인 락원무역총회사로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 전 1호점을 개점하자는 연락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 사진도 받았다”고 밝힘.
  - 평양 개선문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이 상점의 명칭은 ‘락원닭요리전문식당’으로 닭요리와 함께 생맥주 등을 주문받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부지와 20여명의 종업원, 닭, 대동강생맥주는 북측에서 공급하고 초기 투자금과 전문요리사, 기자재, 양념소스 등은 최 대표가 맡음. 개점 후 수익은 최 대표와 락원 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함.
- **샘복지재단, 북한 선수촌 병원 현대화 지원 계획(1/9,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샘복지재단은 북한의 체육선수촌에 있는 ‘안골 체육인 병원’에 10억원 규모의 의료기구와 장비 기증
- **평양에 거창 사과나무 심기로 약속(1/9, 연합)**
  - 경남 거창군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회장 전강석)와 함께 벌이는 대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시내 한 협동농장에 1ha 규모에 거창 사과나무를 심어 키넛은 과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짐.
  - 2월 실무 담당자가 평양에서 기초조사를 벌인 뒤 나무심기에 알맞은



2008년 4월 초순께 강은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행이 평양에서 식수 예정

- **제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조성 예정(1/8, 연합)**
  -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
- **올해 남북 체육교류 적극화(1/8, 조선신보)**
  - “작년 10·4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북남이 체육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하면서 “우리는 10·4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 체육교류를 적극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 **北, 새해 첫 남북공동행사에 부정적(1/7, 연합)**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위원회가 “남측이 새해맞이 행사를 단독 주최하라. 북측에서는 몇 명이 나가서 연설하고 참관하겠다”며 공동행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
  - 이에 따라 12~15일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실무 접촉도 취소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6자회담

- **힐 차관보, 방일(1/7~8)**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하여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일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단에게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에 설명한 신고 내용에 대해 “핵계획, 핵시설 면에서 조차 모든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난(1/7)했음.
  -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과 관련, 힐 차관보는 “신고가 준비되면 우리 측도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전제로 해제할 것임



을 시사했음.

- 그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과 관련, 원자로에서의 연료봉 제거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어 “75% 정도는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음.

● **힐 차관보, 방한(1/8~10)**

- 힐 차관보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8)를 가진 뒤 “6자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1월 중 개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 **힐 차관보, 방중(1/10~11)**

- 힐 차관보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6자회담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1/10)했음.
- 힐 차관보는 “우 부부장과 비핵화 제2단계 진전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고 각자 북한 영변에서 핵 불능화 과정을 참관했던 결과를 비교했다”며 “우 부부장은 불능화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진전이 있고 불능화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힐 차관보는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북핵 신고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1/11)했음.

● **힐 차관보, 6자 수석대표회의 조기개최 난항 시사(1/10)**

-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며 “구체적인 개최 시간은 나 역시 모른다”고 말해 조기개최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음.
- 북한이 미루고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역시 언제 신고가 이뤄질 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며 “북한과 신고 목록에 들어갈 항목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음.

● **힐 차관보, 방러(1/11~12)**

-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 등과 회담하기 위해 이날 러시아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차기 6자회담이 수주 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모든 것은 의장국인 중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러, 20~21일까지 대북 중유공급 완료(1/11)**

-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딱바지 대북 중유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6자회담 합의대로 20~21일 경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러시아는 6자회담 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미 전문가, “북 신고 플루토늄량 계산 차이일 수도”(1/10)

- 북한이 미국측과의 핵신고 협의에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약 50kg 보다 훨씬 적은 30kg 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계산상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등은 이날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이 약 3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원자로에서 완전히 추출해 보관하고 있는 물량만을 제시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ISIS가 추정하는 북한의 전체 플루토늄 보유량은 46~64kg이지만, 이중 28~50kg은 이미 플루토늄으로의 추출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불능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변원자로 내 폐연료봉을 처리해야 추출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임.
- 따라서 미추출 플루토늄과 핵실험으로 이미 써버린 5kg 가량의 플루토늄을 감안하면, 북한이 제시한 30kg 가량의 물량은 미국측 계산과 훨씬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 미국 내 최고의 핵전문가로 꼽히는 올브라이트 소장 등은 또 북한이 시리아 등 다른 나라에 플루토늄을 이전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 ● 미 국무부, “북핵 신고 새 시한 없다”(1/11)

-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 핵 신고가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이 일각에서 새로운 시한 설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떤 6자회담 당사국도 새로운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미국 관계

#### ● CSIS 보고서, “중, 북한 비상사태시 인민해방군 투입”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 평화연구소」가 홈페이지에 올린(1/8)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 이 보고서는 보니 클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임.

- 보고서는 “중국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아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강력히 선호한다”고 밝혔으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연구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유지작전, 환경통제 조치 등 3가지 작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환경통제조치는 북한과 중국 국경선 인근의 북한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오염을 정화하고 핵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난민 유입 저지”라며 “중국은 이를 위해 식량을 공급하고 국경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들은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국경선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경선이 무려 1,394km에 달해 난민 유입 차단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나. 일본 관계

##### ● 일, 급유지원 신테러법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1/11)

-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됐음.
-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된 이 법안을 헌법 규정에 의거해 중의원 재의결에 부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 다. 대만 관계

##### ● 대만 총선, 국민당 압승(1/12)

- 대만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당이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72%인 81석을 차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
- 대선 전초전이라 불린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대만 총통선거(3/22)에서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공산이 매우 커졌음.
-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은 민진당 주석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라. 한·미 관계

##### ● 미 한반도 전문가들, 한·미동맹 강화방안 공동연구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올해 이명박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출되는 것에 맞춰 한·미 동맹



을 강화하는 공동연구에 착수, 관련 보고서를 미국 대선후보 진영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담당 전직 고위 관계자들과 전문가 11명으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s) 프로젝트 연구그룹을 구성해 한·미 동맹 강화방안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음(1/10).
- 이 연구그룹은 이달 말 스탠퍼드대에 모여 한국 대선이 양국 동맹관계에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토론·분석하고 2월 초에는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당선인과 당선인측의 핵심 인사 및 기업, 학계, 언론계 정책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이를 토대로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 진영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할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3월에 내놓을 예정임.
- 연구그룹은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소장,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동북아 정보책임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 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 소장, 찰스 프리처드 「한·미 경제연구소」 소장,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구성됐음.

#### ● 불턴 전 대사, “부시 이 당선인에 PSI 참여 촉구해야”(1/11)

-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수위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불턴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당선인을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의 PSI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턴 전 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실린 ‘북한의 본색’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신고의 이행시한을 어김으로써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미 국방부대표단, 전작권 협의차 방한(1/14)

-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 의사를 밝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양국간 군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함.
- 한·미 양국은 일정한 준비작업을 거쳐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임.



#### 마. 한·중 관계

##### ● 중, 한국 특사 파견(1/13~16)

- 중국 정부는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을 중국정부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했음.
- 왕이 부부장은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1/14)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임.
- 중국이 이번에 특사를 파견하는 배경은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관계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왕이 특사는 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임.

#### 바. 미·중 관계

##### ● 미 태평양군 사령관, 방중(1/13~16)

- 티모시 키팅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대만 입법위원 선거일(1/12) 다음날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지도부와 만나 미·중 군사협력과 양안 관계, 국제 및 지역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임.
- 그의 이번 중국 방문은 대만 민진당과 국민당이 입법원 의석을 놓고 격전을 치르면서 양안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뤄지는 것임.
- 키팅 사령관은 대만이 유엔 가입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유사시 대만 방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 미 국무 부장관, 방중(1/16~20)

- 존 D.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 양국 간 현안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음(1/10).
-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중국 방문 동안 양국 간 전략 및 정치문제에 중점을 둔 모임으로 반기마다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화에도 참가할 예정임.